

---

#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2024. 4.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 2024년 제2차(4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4년 제2차(4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 시 : 2024. 4. 12.(금) 13:3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11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8)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8) : 김성준, 송기한, 신은영, 유송희, 전윤수, 정재경, 최명길, 홍지연 위원
- 안 건 : (심사) 크리에이티브X성수 축제 등 16건  
(지방재정영향평가) 서울라이트 사업
- 심의결과 : 적정 7건, 조건부 추진 6건, 2단계 심사 2건, 재검토 2건

【13시 30분, 개회】

### 1. 크리에이티브X성수 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 위원

- 질문 있습니다. 이게 심사에 다시 재상정된 이유가 재원부분하고 공간 임차료 건 때문에 재상정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대관료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관료가 어떻게 감소가 되었는지.

#### ○ 사업부서

-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렸듯이 첫 회고, 좀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예를 들면 공간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 있어서는 지역 관내 기업들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당한 어떤 보상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예산 상황이 워낙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사실 편성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작년의 예에 맞춰서 저희가 전액 무상은 아니고 최소한도의 예산만 해서, 예를 들면 대관료가 1천만 원이다 이러면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보상하는 개념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를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 ○○○ 위원

- 실무에서도 타당성 검토 제외 사항으로 나와 있고, 재상정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적정으로 했고요, 특별한 의견도 없습니다.

○ 위원장

-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적 이 사업은 우수한 사업인 것 같고. 문화예술인, 구민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도 적정으로 검토했습니다.

○ ○○○ 위원

- 지난번에 재검토 나올 당시에 민간 재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임차료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된 걸로 봐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이 사업은 적정으로 결정하시겠습니다.

**2.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3.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이게 같은 부지에 테마파크하고 추모관하고 동시에 조성하신다는 계획을 제출하신 거죠?

○ 사업부서

- 그건 아니고요. 군남면인데 추모시설과 테마파크는 장소가 다른 곳입니다. 그 인근이고요. 추모시설은 인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서요 추모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이쪽 보시면 같은 군남면이고요, 군남면 중에서 삼거리, 임진강 유원지에 있는 곳이 테마파크 조성 부지로 보실 수 있고요. 이쪽 산 쪽으로 좀 들어간 곳이 추모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별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 ○○○ 위원

- 연천군과 협의를 하셨는데 혹시 연천군과 특정 군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혹시 협력을 논의할 고려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사업부서

- 그것은요 저희가 서울 시내에서 테마파크와 추모관 할 곳을 찾다가 마땅치 않아서 경기 남부 쪽에는 추모시설이나 테마파크가 좀 있어서 북부 쪽을 저희가 검색하게 됐고요. 저희가 검색하는 와중에 연천군에서 적극 투자하겠다, 지원하겠다 연락이 와서 같이 협의하게 됐습니다.

○ 사업부서

- 아무래도 추모관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기초지자체 시·군·구의 강력한 행정적인 지원 없이는 이게 조성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천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이 와서 저희도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 위원

- 테마파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서울시 내에 천왕산 쪽에 하나 있잖아요? 캠핑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확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건 검토 안 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저희도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천왕산 가족캠핑장이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려견 동반을 전용으로 하는 캠핑장이 아니고요 일반 캠핑장인데 반려견 동반을 허용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공에서 반려견 동반 캠핑장이 의성 팻월드에 있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캠핑장 주변에 울타리가 조성되어 있고, 이걸 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좀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천왕산 가족캠핑장이더라고요. 울타리나 이런 데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반려동물의 반려인들을 타깃으로 한 그런 캠핑장을 계획하기 위해서,

○ ○○○ 위원

- 어디인지는 아는데 진입부 쪽에 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용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 해서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추모관이거든요. 저희가 추모관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추모관과 테마파크를 연천군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 시내에서 추모관을 할 곳을 찾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사업부서

- 물론 소규모로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금 난지한강공원에도 반려견 캠핑장을 일부 조성을 하는데요 이게 매우 소수입니다. 15개, 14개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는 이게 한 300면이 돼서 그 정도의 규모가 조금 사이즈가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300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수요가 나오나요?

○ 사업부서

-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반려견 동반하는 전용 캠핑장이 민간에서 지금 곳곳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 캠핑장보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깐 제일 저렴한 게 보통 12만 원, 15만 원, 오토캠핑장이 보통 기준인데 그 정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가동률이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그리고 또 연천이라는 지역이 수변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쪽 지역이 저희 테마파크 부지거든요. 임진강이 흐르는 하천구역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또 연천군이 직접 운영하는 캠핑장 가동률을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도 평일에도 40~50, 그리고 성수기나 주말 같은 때는 80~9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렇기는 한데 저는 300면이라는 숫자가 너무 대규모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반려견을 안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워낙 많이 계시기는 하세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300면이라는 게 일반 캠핑장을 조성해도 그게 다 찰 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데 반려견 테마파크로 이 면수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사실 메인은 추모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추모관을 함에 있어서 연천군에서 같이 제안을 해서 2개 사업을 같이 하는 건데 이 테마파크 말고 추모관 사업만 별도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두 개가 꼭 세트에 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 사업부서

- 네, 추모관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 ○○○ 위원

- 그것은 연천군이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인가요?

○ 사업부서

-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를 가도 추모관 하나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 반대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 위원

- 어차피 위치가 떨어져 있잖아요.

○ 사업부서

- 그래도 같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분리해서 따로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사업부서

- 경기도에서 조성한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마루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혼합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단순하게 추모관 같은 경우만 단독으로 조성을 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그것을 환영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파크랑 같이 하면서 그런 복합적으로 하는 계획들이 지금 지자체에서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그런 추모관이나 테마파크를 서울 시민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경기도 연천군과 협약을 하니까 연천군민들까지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곳인가요?

○ 사업부서

- 당연히 전국 단위로 이용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차별화를 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랑 연천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하나만 여쭙볼게요. 반려동물을 꼭 동반할 경우만 여기에 캠핑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 연속해서 발표하고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같이 토론이 되는 것 같아서 추모관 조성 아주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추모관 조성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남면 선곡리에 약 5천㎡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에 조성하게 되고, 주요시설은 동물화장장, 봉안당, 추모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게 계속 건축심의도 거치고 다 하게 되면 저희가 목표를 '27년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우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 위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반려동물 관련한 재정 투입에 대한 걱정성이 과연 시민사회의 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진행할 때에도 애견 인구에게 별도의 재원이 모집되지 않는데 과연 시에서 대규모의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모두 동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미지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 의견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경위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제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크게 동물보호법이라든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 사업부서

- 우선은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육성이라는 테마가 있듯이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에는 당일치기라도 한 2배, 숙박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의 지출이 일어난다고 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국정과제를 통해서 이 반려동물 관광지를 육성하자라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에 발맞춰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나주도 그렇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테마파크 사업들을 기획을 사실 많이 하고 발표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공에서도 이미 네 군데가 지금 경기도, 그다음에 오산, 그다음에 의성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을 해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관광공사 조사 보니까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아예 여행조차 꿈꾸지 못하는 지금 형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천이 참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즐거움을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도농 상생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하시죠, 위원님.

○ ○○○ 위원

- 여기 지금 앞에 테마파크 조성 같은 경우는 정책 대상 집단이 물어보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추모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추모관인 거죠?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그러면 서울시민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추모관이네요?

○ 사업부서

- 추모관은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이에요.

○ ○○○ 위원

-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화장시설 포화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그 화장장이라는 게 지금 반려동물 화장장을 말씀은,

○ ○○○ 위원

- 아니요. 일반시민들.

○ 사업부서

- 저희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경우가 다르고요. 이게 규모도 훨씬 작습니다.

○ ○○○ 위원

-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포화 상태여서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이용이 많이 조금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반려동물 추모관으로 꼭 조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대상 집단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는 없는지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사업부서

- 저희는 반려동물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규모도 굉장히 작아서 접근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저희가 '21년도에 서울시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반려견 기르시는 분 중에서 그런 화장장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비율이 한 46.8%예요. 나머지는 정말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신다거나, 아니면 동물 같은 사체는 매장이 사실 불법이에요. 매장을 하신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전국보다도 높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서울에 동물화장장 같은 이런 처리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인 면도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부 쪽은 사실 많습니다. 경기도 광주라든지 김포라든지 이쪽은 민간 화장장들이 많고요. 그리고 공공화장장도 경기도에서 여주에다가 지금 만든 상태거든요. 북부지역 쪽은 많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이고. 게다가 또 지금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이쪽 지역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북부권에 추모관을 조성함으로써 인해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도 하고, 그런 불법매장 같은 사회적 문제도 좀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부서

- 화장시설 가격이라든가 규모를 보면 동물은 단위가 1kg, 5kg 미만, 15kg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도 책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간에 대한 그런 화장시설하고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남부 쪽으로는 민간 시설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경기 여주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가동률이라거나 지금 거기가 수요가 딱 찬다거나 그런 조사는 되어 있나요?

○ 사업부서

- 공공이요?

○ ○○○ 위원

-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만약에 수요 대기가 계속 있다거나 수요가 넘친다거나.

○ 사업부서

- 민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많지가 않고, 수요가 많은데 하루종일 화장을 하는 지금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간도 지금 대기업들이 잠식을 조금씩 하고 있을 정도로,

○ ○○○ 위원

- 수요가 많다?

○ 사업부서

- 네. 예를 들어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GS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규모를 체인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민간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 ○○○ 위원

- 지금 서울시민들이 그런 데를 이용하려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기다려야 되고, 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 ○○○ 위원

- 여주는요?

○ 사업부서

- 여주는 지금 공공인데 아직 개장을 못했습니다. 완공은 했는데요. 거기도 조금 지역 주민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개장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럼 연천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 사업부서

- 연천은 다행히 저희가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천군에서 강력하게 지금 사업 추진 의지가 있으셔서 벌써 군남면 주민들하고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리고 곳곳에 지금 공공 오수팻추모공원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학을 또 주민들을 딱 데리고 가서서 이게 그렇게 까지 보기 흉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인식을 좀 많이 시키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게 조성이 된 다음에도 연천하고 계속 그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질의·응답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 위원

-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것은 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어떤 근거들이 제시가 되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오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위원님.

○ ○○○ 위원

- 필요는 한 사업이기는 하고 조성이 필요한 것 같고, 뒤에 추모공원을 같이 하는 건 지금 오늘 같이 들었는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는 1박 2일로 아무리 가신다 해도 생각보다 거리가 꽤 있더라고요. 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접근성이 크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목적에 대한 것도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타당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천왕산 여쭙봤던 게 제가 도시계획 쪽으로 봤을 때 진입로 쪽에 잔여 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로 충분히 거기를 확장해서 별도 펜스 쳐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 위원

- 일단 반려동물 테마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시민들의 그런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양화 한강공원 쪽에다가 이걸 만들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무산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 이것하고 뒤에 있는 추모관하고 사실 이것을 떼어놓고 말을 하면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같이 붙여서 원 플러스 원 같이 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조금은 더 필요성이나 이런 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테마파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시민들의 그런 요구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마땅한 장소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까 천왕산 말씀하셨지만, 아마 연천군하고 그런 쪽에서 추모관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모관을 설립하면서 이것도 같이 지금 가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없으면 추모관도 안 되는 아마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테마파크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리 부분은 사실 이게 캠핑장이잖아요. 요새 저는 캠핑을 그렇

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시는 분들은 차 타고 원거리까지도 가서 차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거리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그럼 지금 조건부 적정과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같이 다수로, 저희가 출석이 11명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이 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부치시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잠시 의견 드리면 뒤에 사업을 같이 의논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게,

○ 위원장

- 안건이 지금 한 건 한 건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 ○○○ 위원

- 제가 참고로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테마파크는 재검토가 나고, 실제로 추모관이 이것은 적정이든 통과가 된다면 사실 이 추모관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정도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요. 그리고 1인가구가 지금 38% 정도 되거든요. 젊은 사람 1인가구일 수도 있고, 혼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키우고 있는 경우가 사실상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로 두는 부분은 사실은 이 동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폐기를 하게 돼 있어요. 사체를 종량제봉투에 넣든가 이게 사실상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모관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추모관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같이 끼워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게 경기도의 이익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당연히 편익이 가는 것이고. 경기도에는 저희가 도농 상생에 대한 시너지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타 지역에 도농 상생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이게 단순히 경기도의 편익을 위해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결국 저출산 시대에 점점 1인가구가 많아지고 반려견 인구가 많아진다면 이 부분은 피해가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검토가 된다면 쌍으로 재검토가 되고, 그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같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 ○○○ 위원

- 그래서 의견을 마저 듣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

○ 위원장

- 지금 안건은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의결은 제 생각에는 따로따로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건이 같이 올라왔으면 같이 의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일단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중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십니다.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6명 거수)

재검토 의견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부적정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조건에 대해서 설명이,

○ 위원장

- 조건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으로 넣겠습니다.

○ ○○○ 위원

- 논리적인 근거를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만 좀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사실 저는 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됐는데 추모공원이 추진이 안 된다면 사실상 야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모공원에 대한 우선이 전제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위원

- 그 의견하고요.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 규모가 너무 크게 조성되는, 300면은 아니라고 정정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규모가 좀 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나중에 단계별 사업을 해서 더 수요가 발생하면 조금 더 확장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시작을 너무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았으면,

○ ○○○ 위원

- 규모를 줄이는 걸 조건으로 하기에는.

○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이렇게 안전을 의결을 하고.  
두 번째 안전인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 검토의견 들겠습니다. ○○○ 위원님. 참석 못하셨습니까? ○○○ 위원님.

○ ○○○ 위원

- 제가 사실은 부적정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는데 저도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부적정으로 한 것은 지금 위치가 너무 일단 먼데 이 사업개요에 보시면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46.8%로 한 절반 정도는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매장이 18. 몇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매장을 하거나 종량제봉투로 처리하는 분

들을 이쪽으로 끌어간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퍼센트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여기까지 가서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가 저는 되게 의문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이런 정도로 처리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생긴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대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분들을 결코 여기서 끌어당기지 못하면, 위치적인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딱 한 번 갑니다. 대부분 처음에 딱 한 번 가고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딱 한 번 가는 것을 거기까지 멀리 가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앞에 캠핑장은 오히려 멀리 가요. 그리고 거기가 위치가 괜찮지만 장묘시설이 이렇게 멀다 그러면 과연 여기까지 갈까 의문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 ○○○ 위원

-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도.

○ ○○○ 위원

- 금액이 문제가 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 ○○○ 위원님께서 부적절 말씀하셨고,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던 ○○○ 위원님은 적정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견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증가 및 사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면 추모관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함. 다만 제시된 예상 운영수익에서 기본 화장 외에 상품 판매 등의 너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 이렇게 하셨지만 적정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다수결로,

○ ○○○ 위원

- 제가 의견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반려견을 키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결국에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반려동물이 죽으면 담아서 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법·제도적으로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어딘가에 화장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는 전국에 민간이 경기도에 대부분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 시설만 있고 공공의 반려동물에 화장시설은 없다는 거죠. 서울시도 없지만 여주에서 하나 정도 만들고 임실에 하나 정도 있다고 치면 제도적으로 의무화했을 때 사실은 좀 더 예상을 해보면 직접 가서 화장할 수도 있지만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버랩 되는 건 뭐냐하면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경계 안에 없습니다. 옛날에 서울시민들의 어떤 그런 처리를 위해서 시계 밖에다 부지를 확보를 했고 지금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면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기회에 어쨌든 땅이라는 곳은 확보를 해놓으면 없어지는 그런 공공재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단계적 개발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도적인 변화를 예상을 하면 확보를 해놓는 것이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우리 ○○○ 위원님께서서는 보니까 조건부 적정으로 의견을 내셨네요.

○ ○○○ 위원

-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규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연초에 협약이 맺어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아까 전에 단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설계단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설계를 하면서 단계적인 확장이라든가 수요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업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견 좀 의견이 뜨겁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수결은 적정, 조건부 추진, 부적정,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재검토 의견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조건부 추진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분. 부적정 의견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그러면 이 건은 조건부 추진으로 ○○○ 위원님의 의견을 조건부로 해서 통과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 달리겠습니다.

#### 4.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장

-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사업부서 오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 위원

-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스페셜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접근성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게 해결하려면 어떤 콘텐츠가 있고, 그 안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체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정체성

들이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접근성의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공감감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의견을 조건부로,

○ ○○○ 위원

- 일단은 조건부 적정으로 의견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위원님.

○ ○○○ 위원

- 저는 재검토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게 2019년부터 해서 어쨌든 조성은 제가 가보기도 했고 해서 이용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에 대한 게 아직 변화된 게 없어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대중교통이나 전용보행통로나 주차장 이런 걸 좀 완비해놓고 공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 중기계획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재검토로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래도 아무리 공간을 조성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공간, 좋은 공연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가치를 잃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걸 먼저 선 집행하고 나서 추가적인 필요한 공간들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재검토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이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접근성의 한계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조건부로 통과시켜주신다면 2단계 정도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일부 재구성을 한다거나 해서 접근성 부분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금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는 2단계 심사 같은 것으로 해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위원님, 혹시 이게 지금 조건부 적정은 없는데 그 의견을 조건부 추진으로,

○ ○○○ 위원

- 맞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건부 추진하고 재검토 의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의견은,

○ ○○○ 위원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이해를 조금 더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단계로 한다는 게 홍수 시에 잠기는 부분만 먼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위에 것은 아마 다음에 투심을 또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부는 국제 설계 그때 지명 디자인 공모해서 지금 선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상부를 계획할 때 접근하는 공중보행로라든가, 예전에 공모(안)을 보면 트램 같이 접근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거기에서 좀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리버버스 선착장 관련해서 설계심의나 이런 것까지 저희 부서에서 다 진행을 했는데 사실 리버버스 선착장도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들은 현재 접근이 가능하고 인프라가 돼 있는 것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정착하고 활성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노들섬을 포함해서 수상대중교통이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도 어쨌든 서울시 전체 종합적인 행정에서 보면 고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이 3가지 안으로 여쭙어보겠습니다.

적정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조건부 추진에 손 들어주시면, 조건은 접근성 개선입니다.

( 위원 다수 거수 )

손 내려주십시오.

재검토 의견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조건부로 바꾸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인데, 조건부는 접근성 개선을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5. 한성백제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궁금한 게 있는데, 한성백제 관련해서 풍납토성 부지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공원도 조성하고 박물관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을 벌써 언론에 유포를 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조성될 걸로 예상되는 그 박물관하고 지금 우리 한성백제박물관 이게 어느 정도 목적성이나 계획성이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알기로는 풍납토성 내에 박물관 세워지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형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국립기관에서 발굴을 해서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어떤 전시관이 세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전에 풍납토성 내부에 분관처럼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산된 상태고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질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 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사실은 이 사업이 수익성을 높이고 관람객들을 혁신적으로 증가시키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이 개편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현재의 노후된 시설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리고 전시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아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면 조건부 적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 적정으로.

○ ○○○ 위원

- 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위원님.

○ ○○○ 위원

- 저는 적정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 위원

- 지난번에 조건부 추진하면서 2단계 심사를 한 이유는 공사 중에 그때는 전체 전시나 이런 것들을 아예 개관하지 않는다고 당초에 돼 있었던 건

데, 지금은 개관도 하면서 부분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공투에서 얘기했듯이 안전대책만 좀 마련되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당연한 것이라 그냥 적정으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 의견은 다 적정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결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성백제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사업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6. 응암정보도서관 건립(생활 SOC 복합화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추가 예산이 36억이잖아요? 이것은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요 지금 추가 확보가 거의 다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청에서 시비가 원래 시비 보전금이 나오는데 시에서도 지금 재정여건이 힘드셔서 저희 쪽으로 아직 12억 정도를 원래 올해 교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내년에 교부한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예산 확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비 중에서 19억 9천이 올해 편성돼 있는 금액인가요? 올해 예산이 19억 9천인데,

○ 사업부서

- 혹시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위원

- 재원에 대해서 페이지가 다르신가요?

○ 사업부서

- 여기서 혹시 페이지 수만 좀 말씀해 주시면.

○ ○○○ 위원

- 279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 확보액이 시비가 19억 9천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 사업부서

- 이게 작년에 돈이 교부가 돼서 이월시켜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억 8천은 내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검토 위원님 의견 들겠습니다. ○○○ 위원님.

○ ○○○ 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적정으로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 위원장

- ○○○ 위원님.

○ ○○○ 위원

- 동의합니다.

○ ○○○ 위원

- 저는 좀 조건을 달았으면 하는 게 사실 도서관은 향후에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적으로 부담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조건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조건부는 '도서관 운영비 구비 확보' 이렇게 달겠습니다.  
의견 여쭙보겠습니다. 걱정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좋습니다.  
조건부 추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이시죠?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여섯 분.

그러면 도서관 운영비 구비 확보라는 조건부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를 내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은 조금 짧은 것 같고요,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7.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여기가 서울대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 것 같은데 요즘 대학 안에도 사실 창업과 관련된 이런 민·관·학 협력체계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이미 대학에 이런 투자, 투입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여기다가 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서울대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대가 그렇게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는 건지.

○ 사업부서

- 일단 앞서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창업지원시설이 있고, 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창업시설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좀 소규모이고, 그 시설들을 묶어줄 수 있는 앵커시설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서울대는 현재 관악구와 또 관악구에 위치한 저희 창업지원시설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창업 관련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생긴다면 이런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위원

- 서울대의 의견은 아니신 거죠?

○ 사업부서

- 서울대도 지속적으로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관련해서 기존에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사실 인근에 있는데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서 창업시설이 충분히 보유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창업시설이 충분히 보유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기존에 창업 관련해서 지역하고 대학하고 같이 하는 창업 관련해서 예산도 충분히 투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창업허브를 조성하면서 차별화 또는 이런 중복된 시설이 커버하지 못하는 창업기능들이 어떤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요?

○ 사업부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조성지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곳이고요. 무엇보다 서울대 등 인근 대학의 인적·기술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관악에스밸리와 여러 시설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앵커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설이 건립된다면 딥테크 분야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데, 딥테크에 국내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와

인근 대학과 협력해서 AI, 바이오, 로봇 분야에서 창업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 위원

- 제가 하나만 여쭙볼게요. 아까 서울대에서는 그런 적극 참여, 지원 이런 게 얘기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인근에 있는 숭실대, 중앙대 등 이런 학교들과의 연계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요?

○ 사업부서

- 일단은 가장 인근에 있는 대학교가 서울대여서 서울대 협력을 말씀드렸고요. 중앙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저희 옆에 있는 대학 창업과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몇 년째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이미 정책적 연계를 계속해오고 있고. 이 시설이 건립된다면 계속 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럼 거의 대부분 위치상으로도 서울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울대와 관련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기존에 서울대에 지원해서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일단은 낙성대역 쪽에 서울창업센터 관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센터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저희가 짓고자 하는 창업허브 관악 보다는 훨씬 소규모이고요. 그런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계속 여전히 지원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에만 스타트업이 5만 2천 개가 넘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창업시설로 커버하는 입주기업 TO가 1천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숫자만 놓고 봐도 여전히 저희가 계속 커버해야 되는 수요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입주 기업을 모집할 때 경쟁률도 항상 최소 7 대 1, 8 대 1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허브가 생길 경우에 더 깊이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저 질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악에스밸리도 있고, 캠퍼스타운 하면서 서울대랑 중대에다 지금 창업을 위한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있

고, 추진하고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걸로도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는,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 사업부서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원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창업허브 관악이 생길 경우에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구태여 인근 지역 대학으로 대상을 좁혀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대규모의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 기술분야를 광범위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유효하게 운영이 되려면 수요가 좀 더 확대돼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서울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구태여 구내에 있는 대학만 좀 타겟으로 두시는 것 같아서 혹시 서울 전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는 걸 검토하신 적은 없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대에 국한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대학도 딥테크 관련한 특허나 기술,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관악허브에 와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있고요,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 관련된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대형 규모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헛갈려 하시는 게 뭐냐하면 구에서 하거나 소규모 10실 이내인 그런 창업 시설이 있고, 서울에 있는 거점별로 대규모인 데가 어디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먼저 좀 알고 싶거든요.

○ 사업부서

- 지금 서울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시설은 24개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

로 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업지원시설을 크게 창업허브와 창업센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창업허브는 각 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면서 좀 대규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시설들이 현재 7개가 있는데, 공덕에 있는 창업 허브 공덕, 마곡에 있는 앰플러스, 창업허브 창동, 창업허브 성수, 그다음에 홍릉에 있는 바이오 허브, 여의도에 있는 핀테크, 양재에 있는 AI, 7개가 창업허브가 되고요. 나머지 17개가 창업센터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는데 이 사업은 창업허브, 새로운 허브 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지금 관악하고 동작하고 구로하고 이 부분에는 지금 허브가 없다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질의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업부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 위원

- 저는 주차장 때문에 조건부라고 적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되게 길죠. 내용은 다 창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 곳 입지에 들어가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고.

그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대학 내에도 이미 필요한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왜 굳이 공간 대여를 이 부지에다 해야 되느냐가 문제고. 그리고 저희가 클러스터 지역 계획을 할 때 중요한 게 산학 협력이잖아요. 그런데 관악구 지역에는 지금 산학과 관련해서 학은 많은데, 3개 대학이나 있

으니까요. 그런데 기업체가 많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앵커로서 역할을 하려면 산학에 관련한, 그러니까 기업체가 많이 들어 있는 공덕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 입지로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되는데 이 곳이 과연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지역적인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평가로 조건부 적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더 듣다 보니 주차장만으로는 이것을 조건부 적정이라고 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검토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저는 기존 대학들과의 차별적인 창업 프로그램 내용들이 전혀 없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하셨을 때 창업의 수요는 많은데 그걸 흡수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더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창업은 버추얼한 창업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시되지도 않고 해서 저는 아예 재검토로 이렇게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두 사람은 창업 프로그램이나 차별성, 입지 타당성의 문제를 들어서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 ○ ○○○ 위원

-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관악에 있는 사실상 유사한 시설이 17개가 있어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 서울대가 운영하는 것, 또 서울대하고 시가 지원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다 2실, 4실, 많은 게 15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분산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없고, 굉장히 정보가 단절돼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또 창업 인프라가 시가 가지고 있는 거점을 여러 군데 보면 지금 마포에 있는 것은 한 100 기업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좀 규모가 큰 서울창업허브가 공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릉 바이오도 있고, 또 지역별로 사실 거점별로 하나씩 있는데 지금 자꾸 서울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학을 위한 창업시설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단지 이렇게 소규모 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흡수하고, 흡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진행하는 게 바

람직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 이미 저희가 시가 보상을 해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부지이고, 공영주차장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좀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1천억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지금 2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75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드는 것이라서 저는 나머지 시설, 16개 시설을 흡수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또 서울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지역의 중요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 ○○○ 위원

- 예, 조건인데 그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걸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도록 하고 2단계 심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획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또 우려들 있잖아요? 서울대나. 이게 산학도 중요한데 관악이라는 구의 특징이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계획을 사전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2단계 심사 정도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 네, 말씀하십시오.

○ ○○○ 위원

- 지금 입주실이 한 총 100개실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데,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학 졸업과는 상관없이 서울 시민이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 ○○○ 위원

- 그렇죠. 사실은 입주가 민간에서 하면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게 거의 시중 가격이 70~80만 원인데 공공에서는 그것의 한 30% 정도 수준에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 ○○○ 위원

- 여기 대학 얘기가 너무 나와서 마치 대학을 지원하는 것처럼 사업이 보이는 게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 같다.

○ ○○○ 위원

-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주변에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인프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강조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 의견은 서울시가 조금 더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되고 2차 심사를 한 번 더 받는 조건으로,

○ ○○○ 위원

- 저는 16개 기존의 작은 소규모,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7실, 2실, 4실, 6실 이렇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일 큰 게 22실입니다. 이것은 캠퍼스타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게 일몰되는 게 이게 건립되기 이전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합 흡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이 창업공간에 대한 걸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냐 하면 소규모 시설이 많으면 사실 산재돼서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밖에 안 되는데 규모가 큰 허브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허브나 이런 시설을 권역별로 좀 뒤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통합흡수나 이렇게 해서 규모를 조금 키우는 방향으로 하는 형태로,

○ ○○○ 위원

- 규모를 키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기존의 소규모는 다 흡수를 하는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흡수통합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확장,

○ ○○○ 위원

-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건부 추진하는 것하고, 위원들은 재검토. 아예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해라.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견을 두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건부는 기존 시설들을 조금 이렇게 흡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형태로 조건부를 추진하자.

○ ○○○ 위원

- 한 번 더 2단계.

○ 위원장

- 2단계를 하자. 그 조건이 있고. 재검토는 입지나 프로그램이나 명확하게 해서 다 처음부터 해라. 이게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분.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되, 조건을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기존 시설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으로,

○ ○○○ 위원

- 그리고 서울대에 제한된 부분은 오해하시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학교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라. 이렇게 조건 세가지를 달겠습니다.

## 8. (가칭)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장

-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업부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 위원장

- ○○○ 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 저도 걱정하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보통 창업지원과 관련한 정책들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약간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조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마이크로팩토리가 기술 유출 방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걱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저도 걱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 ○○○ 위원

- 애초에는 저희가 재검토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앞에 창업허브 관악도 마찬가지로 사실 서울시에 다양한 창업지원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으로 했기는 했는데, 사실 주로 이런 창업지원시설들이 위치에 돼 있는 데를 보면 아무래도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쪽 구로나 금천, 또 그다음에 관악 이쪽에는 사실 좀 빈약하고 아무래도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강하게 저희가 재검토 의견을 주장하지는 않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는 정도로,

○ ○○○ 위원

- 사실 저희가 앞에 것은 그냥 봤을 때 1천억이고 뒤에 건 920억, 2천억짜리 사업이에요. 부지 매입비를 빼더라도 한 1,500억 정도는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굉장히 청년이든, 아니면 4050이든 창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취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적정 의견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님은 다 걱정하시다고 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십시오.

○ ○○○ 위원

- 유사 사업이 서울시에서 녹색기술센터가 위탁사업으로 3D 프린팅 제조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운영률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전면 재검토 요청을 제가 작년에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단순히 공간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시설, 장비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실 대정부 차원에서 장비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들이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것과 중복투자라든지, 아니면 실제 필요한 장비들을 제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아니면 SBA 이쪽에 아마 위탁을 해서 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런 쪽의 역량이 과연 국가 단위의 R&D 지원전략하고 맞춰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을 가지고는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실제로 추진하게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면 운영관리체계는 기존의 단순 위탁에서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안에 사업 추진상에서 참고자료로 반드시 조금 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관리상에서 국가 R&D 사업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적정으로 저희가 의결을 하겠습니다.

## 9. 본선 통신케이블 철거 및 설치 (2호선)

## 10. 본선 통신케이블 철거 및 설치 (3, 4호선)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됐나요?

○ 사업부서

- 네, 국비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심만 지나면 저희가 간주 처리해서 국비는 저희가 당겨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좀 해보니까 실제로 쇠 안에 동축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한다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성능 개선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동축케이블이 통신상에 좋지 않으니까 그걸 광케이블로 바꾸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들리는데, 맞나요?

○ 사업부서

-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터널 측벽에 동축케이블이 아니고요 동으로 된 동선 케이블입니다. 동선 케이블이고요, 이게 한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케이블 그 특성이 지금 굉장히 저하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동케이블이 설치돼 있는 라다가 있습니다. 라다 위에 케이블이 쪽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라다 부분도 좀 부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처진다든지 하면 터널 안에 열차가 운행할 때 터널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동케이블이 4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등급도 D등급을 받았고요. 일단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신규 케이블로 교체를 하고, 광케이블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터널 안에 지금 딱 차 있는 라다를 하중을 좀 줄여줘서 라다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 위원

- 그러면 지금 전체가 다 D등급이라는 얘기신 거예요?

○ 사업부서

- 네. 동케이블 자체가 한 40년 쓰다 보니까 그 특성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후에 교체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 사업부서

- 네, 한 번도 없습니다. 광케이블은 추가로 신설한 게 있는데요 동케이블은 아직 교체한 적이 개통 이래 한 번도 없습니다.

○ 위원장

- 질의가 없으시면 사업부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검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님.

○ ○○○ 위원

- 노후화된 시설 교체 부분이라 다 걱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투에서 얘기하셨던 공사비용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건부까지는 아니고 그것은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 위원님.

○ ○○○ 위원

- 제가 두 건 다 검토한 결과 두 건 다 지금 검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저도 걱정 의견 드립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다 걱정 의견으로 나와서 이걸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1. 7호선 면목역 1번 출입구 E/S 설치

12. 7호선 온수역 6번 출입구 E/S 설치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면목선 일반 출입구를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다른 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다른 역이 더 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도 있고 한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내부 기준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는 어느 정도 설치하는 데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하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물론 다른 역과 모든 역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역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3개에서 2개 출입구는 물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설치비율로 보면 66%로 해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시면 출입구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멍니다. 100m, 150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방향도 보면 한 방향으로만 출입구가 나 있어서 1번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계단 수도 적은 편이 아니고,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하면 대체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하시려면 3번이나 2번으로 가셔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이용률은 떨어지는데 개발계획이나 확장계

획 대비해서 이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3번 출구에서 나오면 건너편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있나요?

○ 사업부서

- 3번 출구 나오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그 횡단보도 건너서 1번 출구로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 사업부서

- 한 100m 정도 갑니다.

○ 위원장

- 네, 말씀하십시오.

○ ○○○ 위원

-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위치에 계단을 오른 다음에 수평으로 이동하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티역 8번 출구인가가 아마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공사상의 이슈였는지 계단을 오른 다음에 반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좀 희한한 형태의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단보다 에스컬레이터랑 각도가 더 가팔라서 이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부대공사가 좀 더 진행되고 나야지 한 번에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 확인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계단 섬이 길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그 부분은 계단을 없애서 한 번에 그냥 올라갈 수 있게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 위원  
- 감사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양방향으로 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넓지가 않아 보이는데 계단은 완전히 없애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계단은 없어집니다.

○ ○○○ 위원  
- 여기 보면 장애인시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에 장애인이 휠체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추가가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 ○○○ 위원  
- 엘리베이터는 바로 옆에 있는 건가요? 그럼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 사업부서  
-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안전상의 이유로 거의 이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1동선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 위원  
- 장애인시설이 있는 걸 없애는 것은 조금.

○ 사업부서  
-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계단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장애인이 스스로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역무원의 보조를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장애인시설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없애나가는 추세이고, 실제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지는 않는, 장애인시설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선이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 ○○○ 위원

-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아마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걸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없애고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업부서

- 여기에도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게 한 개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전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 ○○○ 위원

-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 사업부서

- 3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건너편이네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 위원

- 뭐 하나 좀 여쭙보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들 나올 때 계속 나오는 의견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계획이라든가, 또 우선순위라든가, 지난번에도 나왔었고, 또 그 지난번에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간에 많은 지적을 받으셔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예산을 효율화하면서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 사업부서

- 저도 사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업무를 주무관으로서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제 전 주무관님도 그렇고 전전에도 계속 정말 숙제로 남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 현안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다 각자 지역의 요구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위에서 내려서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의 수립이 살짝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 ○○○ 위원

- 교통공사에서 지금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역사별 우선순위가 있죠?

○ 사업부서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사업부서

- 예전에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급한 역사들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 위원

- 다 완료가 됐어요?

○ 사업부서

- 네. 그 당시에 국비 지원 받은 매칭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소진은 끝난 상태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저는 당초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나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에도 그런 식으로 또 언급이 되는 게 있어서 그걸 제시하면 조건부 적정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현재 경제성 B/C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딱 봤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잘 보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재검토로 바꿀까 합니다.

○ 위원장

- ○○○ 위원님.

○ ○○○ 위원

- 저도 재검토 의견 드리는데요. 아까 질의도 했지만 이 부분이 교통공사에서 가져올 때 과연 이게 먼저 시급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번 연도에는 어디까지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여쭙보지만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계속 지적사항인 것 같거든요.

중랑구에서 오히려 상봉역은 면목역보다 더 확보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선이 면목역이어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뒤에 있는 온수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약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보율이 낮은 것부터 올라간 다거나, 그중에서도 또 특히 봤을 때 이용률이 높은 역사부터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우선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두 건 다 저는 재검토 의견을 내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7호선 면목역, 온수역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재검토로 심의 결과 하시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연결램프 개선사업”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온수역이요.

○ 위원장

- 온수역 같이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같이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 ○○○ 위원

- 앞에 같이 하셨고 이걸 따로따로.

○ 위원장

- 따로 할까요?

○ 위원 다수

- 설명도 들으시는 게,

○ 위원장

- 설명도 같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온수역 하시죠.

○ ○○○ 위원

- 앞에 거가 지난번에 재검토된 거예요.

○ 위원장

- 왜냐하면 두 분 다 모든 검토를 재검토 의견을 다 주셔서 제가 그렇게 의견을 했는데, 설명 듣고 할까요? 아니면 재검토로 결정을 할까요?

○ ○○○ 위원

- 뒤에 것은 설명을 아직.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같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그러면 코레일 구간에는 지금 설치가 다 돼 있나요?

○ 사업부서

- 코레일 공간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 ○○○ 위원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요?

○ 사업부서

- 7호선은 지하 역사인데요 1호선 온수역은 지상역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평지로 오면서 역사 한 층 올라가는 걸로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사실 7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이 1호선 출입구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사업부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앞에 의견과 동의를 합니다. 재검토.

○ ○○○ 위원

- 저도 앞에 의견과 일치합니다. 말씀 들어서 이용률이랑 해서 맞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를 설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 이렇게 시급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재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 ○○○ 위원

- 저도,

○ 위원장

- 재검토로?

○ ○○○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의견으로 하셨기 때문에 동 안건은 재검토로 의결하겠습니다.

### 13.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수서방면) 연결램프 개선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정체가 너무 심각한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공간이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 혹시 더 정체가 발생할 위험을 전혀 패를 안 끼치고 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그건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좀 고민을 해볼 사항이기는 한데, 아마 공사를 하면 영향은 그 공사 기간 동안은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올림픽대로에 대한 구조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가장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공사기간을 지금 3년 정도 잡으셨는데 3년 동안 그럼 이 지역 이 구간은 더 막힐 가능성이 있겠네요?

○ 사업부서

- 가교 같은 걸 설치해서 나중에 최대한 지정체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 이 도로 확장이죠? 지금 그 위치에다가 확장만 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선형이 좀 많이 바뀌기는 합니다. 이게 연장이 한 595m 정도로 연장이 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티아파트에서 이격시키도록 S자로 선형이 되고, 현재 1차로를 2차로로 확대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이걸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면 아까 보니까 거의 정체 구간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사업부서

- 네, 지금 저희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거의 정체가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 위원장

- 정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부서

- 저희 조사 결과로는 현재 피크 때는 한 1km 이상 정체가 되고, 이게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지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사업부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 ○○○ 위원

- 기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 리택에서 B/C 경제성이 있다고 내놓은 결과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깊이 있는 분석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좀 한계가 있고, 또 지금 공투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후 단계에서 미시시물레이션을 해서 효과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적정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의견으로 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 ○○○ 위원님.

○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적정으로 의견 드리면서 공투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달려서 향후에 추가 분석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위원

-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들께서 적정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추가 분석을 하고 나서 추진해달라고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간사

- 위원장님, 지금 부서에서 빨라지다 보니까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 제가 빨리 했습니다.(웃음) 그러면 한 15분 정도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16시 04분, 정희]

[16시 15분, 속개]

## 15.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여기 보면 2단계 심사 사업에서 정독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구조 보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투자심사 대상 시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정독도서관 주차장 사업과 연계사업이 개별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세부일정을 보면 정독도서관 공공보행통로 개설사업이 2025년 1월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 사업부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도서관하고 서울시하고 종로구, 이 3개 기관이 합쳐져 있는데 서울시하고 종로구는 예산이라는 게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독도서관, 이게 서울시 교육청 소관인데 거기하고 지금 이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한 방에 해서 공공보행통로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또 지하주차장도 한방에 해라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 ○○○ 위원

-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으로 해서 관광특별관리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내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어차피 별로 관광진흥법이랑 국회법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 그걸 포함시켜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사업 추진목적에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 오버투어리즘이 가중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회동하고 삼청동 일대는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사실 서울시로도 좋고 종로도 좋은데, 다만 주민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객도 오는 건 좋지만 오버투어리즘을 어쨌든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재생사업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법적인 연계는 어차피 이것은 국토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다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 위원

-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하시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건 계속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장기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 사업부서

- 그런데 장기간으로도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스팟으로 짧게. 외국인들이 잘 모르니까 여기가 무슨 공중화장실인양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볼일을 본다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화장실 이런 것은 그냥 계속해서 짧게짧게 지금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촌 가회동하고 삼청동 거기가 관광객이 부산에 있는 관광객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년 365일 매일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버투어리즘이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쪽에 관광객 숫자가 부산에 있는 관광객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니까저는 깜짝 놀랐네요. 부산 가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것은 공투센터 검토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검토가 중요합니다. ○○○ 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계속 질문드렸던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연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연계가 돼서 정독도서관 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조건부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 위원님.

○ ○○○ 위원

-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견 냈는데요. 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는 하셨는데 저는 정독도서관과 관련된 공공보행통로 개설하고 지역기반시설 연계 주민편의시설은 금회 사업에서는 조금 제외돼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지금 정독도서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된 후에 다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히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정독도서관 연계.

○ ○○○ 위원

- 네. 지금 정독도서관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된 후에 그것과 연계된 사업은 추후에 진행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 ○○○ 위원

- 이게 전체 북촌 일대를 다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독도서관만 제외하고 한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제외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재구조화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사업비를 선투자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게 의문인 거죠.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항목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 위원장

-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검토가 되었나요?

○ ○○○ 위원

- 그렇다면 다른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만 제외한다라는 것은 사실,

○ ○○○ 위원

- 아니면 장기로 단계를 좀 나누든가.

○ ○○○ 위원

- 그런데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개 사업을 사실상 묶은 것이라 추진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교육청에서 세부실행계획, 정독도서관 연결통로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너무 이게 세게 의견을 달면, 그래서 의견을 이 정도로 다는 게 어떤가. 현재 교육청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세부 수립 후에 조금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든가 그 부분만.

○ 위원장

- 그러면 이 사업은 정독도서관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연계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적정으로 해야 되나요? 적정을 달죠. 적정을 달고, 우리 위원님은 조건부 추진으로 할까요?

○ ○○○ 위원

- 조건부 추진이 맞지 않나요?

○ 위원장

- 우리 예산부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정독도서관 관련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해야 될 조건부 추진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신데,

○ ○○○ 위원

- 조건부 추진은 맞는데 그것을 어떤 수준까지 제약을 두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 위원님 말씀은 아예 이 정독도서관 관련 부분은 여기서 빼고,

○ ○○○ 위원

- 아예 빼자는 건 아니고요. 포함되지만 세부적인 기본계획이나 교육청에서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게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면.

○ ○○○ 위원

- 추진하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 ○○○ 위원

- 네, 그걸 반영해서.

○ ○○○ 위원

- 그러면.

○ 위원장

- 보니까 내용은 같은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조건부 적정으로 하셨고. 그

럼 조건부 추진으로 해서 정독도서관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 위원

- 예산 집행할 때 그 부분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6. 홍제천·불광천 유지용수 수질개선사업

○ 위원장

- 순서를 바꾸어서 “홍제천·불광천 유지용수 수질개선사업”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설계는 얼마나 됐어요? 실시설계를 착수했다고 돼 있거든요. 설계는 얼마나 됐죠?

○ 사업부서

-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저희가 용역기간이 올 8월까지 돼 있거든요.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저희가 이제 자문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 위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에 시작해서 올 해 준공이신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네.

○ ○○○ 위원

- 그 용역비가 지금 이번 사업비 산출 내역에도 3억이 포함돼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설계 용역이랑 다른 건가요?

○ 사업부서

- 똑같습니다. 설계비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 위원

-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올해 것에,

○ 사업부서

-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작년에 발주를 하고 올해까지 넘어온 거죠.

○ ○○○ 위원

- 사업비가 넘어와서 설계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네.

○ ○○○ 위원

- '22년도 9월 달에 치수안전과에서 계획 세운 것을 보면 불광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서대문구에서 계획 세운 것에 보면 홍제천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홍제천도 이 하상여과시설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지금도 현재는 물을 홍제천하고 불강천하고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상으로 현재는 6만 8천 톤을 보내게끔 돼 있는데 지금 하상여과수 폐색이 돼서 물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지금 한 1만 8천 톤 정도만이 지금 못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한 5만 톤 정도 부족하게 보내고 있어서 거기에 냄새도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하고 망간 수치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물을 보낼 때 빨간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 위원

- 그러면 '22년도 할 때는 홍제천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 사업부서

- 원래 옛날부터 같이 했던 사업인데 아마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때 할 때도 불광천, 홍제천이 같이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 사업부서

- 네네. 지금 유지용수 보내는 게 홍제천하고 불광천하고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 ○○○ 위원

- 사업비가 추정하실 때 이 당시 '22년도에 할 때는 39억이었던 게 '24년 1월에 서대문에서 할 때는 갑자기 76억이 됐어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기본계획 당시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난지공원에서 물을 보낼 때 직수로만 보내려고 했었는데 직수로 하게 되니까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2등급에서 4등급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2등급만 계속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적조현상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렇게 나올 때는 4급수를 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을 받는 자치구나 시민들 입장에서 4급수 물이면 솔직히 별로 안 좋잖아요. 자문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이것을 여과에서 보내는 게 맞다고 그래서 여과시설이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 ○○○ 위원

- 그리고 이 인근에 GTX-A 공사장 관련해서 거기서 지금 GTX-A 노선 쪽에서 지하수 나오는 것 있죠?

○ 사업부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8천 톤을 저희가 보내야 되는데 지금 6만 2천

톤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천 톤을 그 지하철 현장에서 나오는 지하수하고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 ○○○ 위원

- 그게 다 고려된,

○ 사업부서

- 네네, 맞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 오늘 안 오셨습니까? ○○○ 위원님은 걱정으로 판정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유지용수 확보를 통한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 진행의 필요성이 충분함. 다만 사업 완료 후 기존 하상여과시설의 활용 및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존 시설의 유지비 혹은 철거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 ○○○ 위원

- 저는 조건부 걱정으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설계 용역비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해소를 했고.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상여과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건으로 붙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건부 걱정으로 했습니다.

○ ○○○ 위원

- 관련해서 어쨌든 한강의 수질이라는 게 1년 내내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갈수기 때는.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녹조라떼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도 있어서 그것을 무조건 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기본계획 단계가 아니고 사실은 그전에 40억 이하로 책정을 해서 투심 없이 설계를 진행을 해서 거의 마무리 직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이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건을 붙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그 내용에 대한 검토 여부를 확인 후에 집행하시는 걸로.

○ ○○○ 위원

- 재검토 의견을 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하상여과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이 하상여과시설 부분은 통상 한 30년 정도 쓴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현재 여기는 설치된 게 이제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걸 못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상여과시설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추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홍제천·불광천 유지용수수질 개선사업은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조건 내용은 여과시설 설치 내용 검토로 달겠습니다.

## 17.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영축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투심 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는지.

○ 사업부서

- 영축산 대상지가 산 정상에 있습니다. 영축산 대상지 주변으로 이미 저희들이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충분히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축산 아래쪽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쪽에 저희들이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62대 정도 있고요, 특히 데크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에 지금 유희지로 되어 있는 공간에 특별히 주차공간을 10여 대 정도 더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성하면 그 데크에서 무장애 숲길을 통해서 그 영축산 대상지까지는 약 8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접근성을 보완할 예정이고.

특히 거기 영축산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인데 다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등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 접근성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키즈카페 하는 시 부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 사업부서

- 키즈카페는 서울시에서 중기적으로 400여 개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노원구에 20여 개가 들어서야 수요가 맞습니다. 그게 노원구에 지금 현재 1개도 없습니다. 지금 1개가 건설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키즈카페가 서울시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조성비와 운영비를 다 의무적으로 대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영축산에 대한 시비는 키즈카페 건립 지원한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그렇지 않습니다. 목재건축 실연사업이 국비 50 대 시비 50으로 매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축산이 시유지라서 시비가 매칭 50으로 20억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2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키즈카페 조성은 서울시비를 받지 않아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단지 운

영비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물을 짓기 위한 목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목공예 체험장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용 목재하고 목공예용 목재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목공예용 목재는 건축용으로 쓰는 것 같이 단단한 나무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목공예 체험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는 수종으로 제가 보기에는 목공예용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 사업부서

- 건물을 짓는 목재는요 국산목재를 50% 사용하는 건데요, 국산목재는 저희가 낙엽송 같은 그런 소재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0% 이상은 외국에서 수입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하면서 목공예 체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국산목재로 해서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목공 놀이시설,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그 소재는 국산목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업부서

- 그렇죠. 이 사업 자체는 목공예 체험장은 국산목재사업 목적하고는 관계는 없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 네, 말씀하십시오.

○ ○○○ 위원

-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었을 때에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과 제목이 다 따로 논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것을 실현하는 사업인데 정작 개요는 산림육 애기가 나오고, 그리고 내용으로는 갑자기 키즈카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연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건데 왜 산속에 위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내용 중에서도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지정될 때 이 사업의 내용들이 같이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지금 노원구에 국비 예산이 확보된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산림청하고 같이 연관된 그런 사업이고요. 산림청에서는 아무래도 도심에 기존의 건물을 목재를 사용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산림청에서는 산림지역에 여러 가지 공원이나 그런 쪽에 목재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산림문화 체험이나 여러 가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신에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국산목재의 건축기술도 높이고, 또 활용도도 높이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주요 건물에 50% 이상을 국산목재로 건축부분에 쓰기로 돼 있습니다. 아까 목재체험장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이고, 주요 건물에 대한 구조의 부분은 50% 이상 목재를 쓰고, 그 목재를 쓰으로써 탄소 저감이라든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도 다 좋은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국가에서 받은 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것들이 혹시 조금 더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목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조금 더 사용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들어가는 게 아

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고요.

두 번째는 키즈카페라든가, 아니면 체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정말 철저하게 파악이 되는 상태에서 이 시설이 기획된 건지. 그렇다라고 하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일 것이고,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구일 건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해서 여기 시설까지 올 수 있을 때 그때의 접근성과 주차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검토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 사업부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사항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75년에 준공이 되어서 '77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약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기관에는 한 36년 정도는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공원이 서울시에서 발표가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개인이 서울시에 토지 매입을 청구를 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키즈카페라든가 일부 카페 이런 걸 도입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2020년경부터 그쪽에 있는 영축산 숲속의 집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도 굉장히 그 건물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일단 건축물 안전진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D등급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철거해서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6억 정도밖에 안 나서 키즈카페는 좀 오픈된 공간이 필요해서 그것보다는 철거 후 재건축을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요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0세에서 9세까지가 키즈카페 이용 인구입니다. 0세에서 9세까지가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한 5위 정도 되고요. 거기 대상지가 있는 부분에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가 밀접한 경계지역인

데 저희들 수요분석으로는 약 6만 5천여 명의 아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키즈카페 이용 인구의 약 12%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수요조사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참고로 그 주변에 바로 같은 영축산에 유아숲 체험장이 산림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야외에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도 1년에 한 1만 5천 명 정도 우리 유아들이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걸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게 되면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 위원님, 오늘 안 오셨죠? 재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님은 제가 내용이 조금 많은데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산림복합체험센터의 경우 한방카페 및 목재 키즈카페가 주요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 체험센터 성격보다는 상업적 공간의 성격이 강함. 한방카페 및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과 탄소중립 실현 달성 및 목재문화체험과의 상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이렇게 재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님.

○ ○○○ 위원

- 적정으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 보다는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었던 사업이어서, 그래서 좀 보완이 됐다고 생각했고. 목

재를 활용해서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확보를 했고 해서 적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재검토로 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영축산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다시 검증을 해서 개를 철거하고 진짜 목재를 활용한 건물을 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잔여공간에서 목재를 활용한 다른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재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로 의견 정정하겠습니다.

○ ○○○ 위원

- 이게 두 군데예요. 사실상 이게 분리해서 투심이 들어왔어야 맞는데 함께 들어온 동일한 사업이고, 아마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이걸 함께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사실 수락산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시비 투입도 없고, 국비하고. 그리고 이미 부지 자체가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락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이 주변에 목재체험장이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는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산이라는 걸로 봤을 때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디든 산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락산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영축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투심이라는 게 지난번에 재검토된 사유에 대해서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또 이것을 원점에 놓고서 보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보다 보완은 됐지만 아무래도 이 영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정도는 통과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규모하고 상관없이 수락산 같은 경우는 통과를 하고, 영축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 위원장

- 지금 이 안건은 1건인데 내용은 2개인 상황입니다. 우리 ○○○ 위원님 의견은 수락산에 대해서 어떻게,

○ ○○○ 위원

- 수락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건부 추진으로 달고, 영축산에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다시 그 부분은 재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 ○○○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 추진으로 달되 영축산에 대해서는 그 내용 검토를,

○ ○○○ 위원

- 영축산 부분은 2단계 심사로.

○ 위원장

-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18. (지방재정영향평가) 서울라이트 사업

○ 위원장

- 마지막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안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배부 및 소관부서 설명 )

○ 위원장

-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33억 원에서 지금 25억 원은 시비로, 나머지 재원 8억 원은 기업 협찬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억 원이 지금 현재 기업이 투자하기로 협찬금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까지 기업이 협찬금으로 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소관부서

- 일단 협찬을 하려고 하는 목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아직도 협찬 예정 또는 더 이렇게 모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요? 그렇죠?

○ 소관부서

- 네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33억 원 중에서 25억 원 시비가 확정되어 있고, 재원 8억원은 모금 예정.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그러면 예산계획을 수립한 게 기본적으로 행사가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업 협찬금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어서 일단은 시비를 25억으로 배정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협찬금이 8억 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 해서요.

○ ○○○ 위원

- 사실 이게 30억 이하인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 29억을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업 협찬을 많이 받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29억이나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30억이 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DDP에 겨울에 보시면 실제 이 서울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건 심사를 저희가 특별한 의견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으로 판단을 해도 될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러면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적정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했던 것에 대해서 안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차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안건 16건은 적정 6건, 조건부 추진 6건, 2단계 심사 2건, 재검토 2건, 부적정 0건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안건은 1건은 적정 1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차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17시 05분, 폐회】